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333>

JCCT 2024-3-39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과 ‘기업시민’ 개념의 비교를 통한 ESG 경영 합리성 연구

Research on ESG management rationality through comparison of Aristotle's concept of ‘citizen’ and ‘corporate citizenship’

박윤진*

YUN JIN PARK

요약 그 동안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자기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국한되어 판단되었다. 그러나 환경, 사회, 기업의 이익을 조화와 균형의 관점으로 추구하는 ESG 시대의 경영합리성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의 목표였던 부의 축적을 넘어 전체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과 공정한 발전 등 전체 사회의 행복을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도모하는 전체 사회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최고선과 다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필자는 ESG 시대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합리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과 ESG 경영의 주체인 ‘기업시민’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ESG 시대의 새로운 경영합리성은 재무적 이익과 환경적·사회적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있고, 이것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올바른 신념과 실천적 지혜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대표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ESG, 합리성, 기업시민, 아리스토텔레스, 시민, 기업윤리, 윤리경영

Abstract So far, the rationality of management decisions has been limited to the economic rationality of maximizing self-interest. However, management rationality in the ESG era, which pursues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society, and the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y and balance, requires new judgment standards. The goal of ESG management i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es beyo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which was the goal of the past economy, and aims for the happiness of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coexistence and fair development that develops together with the entire society. From Aristotle's perspective, the happiness of the entire society promoted by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 different from the highest good of citizens, members of the community.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new management rationality required for managers in the ESG era by comparing Aristotle's concept of citizenship with the concept of ‘corporate citizenship’, one of the main concepts of ESG management. Through this, we sought to show that companies are essentially communal entities and that the company's pursuit of profit requires rationality of balance and harmony with environmental and social interests.

Key words : ESG, Rationality, Corporate Citizens, Aristotle, Citizens, Corporate Ethics, Ethical Management

*정회원,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접수일: 2024년 1월 11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0일

Received: January 11, 2024 / Revised: January 27, 2024

Accepted: February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dasiosim@naver.com

Education & Training Team,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I. 서론

경영합리성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위한 합리성인가? 그동안 경영합리성은 이윤 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집중되어왔다. 어떤 경제학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곧 이윤을 많이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 그러나 기업 경영자가 의지하는 경제적 합리성은 사회적 존재인 기업이 가진 다양한 상황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기업의 존재 목적을 오직 이윤 추구로 획일화시킨다.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해 기업을 이윤 추구 존재로서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도적 의무화를 앞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지배구조적 책임도 함께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몰고 온 결과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불합리한 결과는 기후재난으로 대표되는 환경분야에서 발생했다. 이윤 극대화에 봉사하는 경제적 합리성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탄소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극 해빙 소멸과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폭우와 폭염, 초대형 산불과 태풍, 조류 변화에 따른 해안 생태계 교란, 그동안 없었던 전염병 발생 등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탄소에너지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지구환경시스템은 자생적인 회복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예상 시나리오들이 줄을 잇고 있다. [2]

사회 분야에서도 이윤 추구만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합리성의 폐단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와 애플 등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구권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근로환경이 언론에 알려져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의 윤리의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철학적 숙고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경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연속이 아니다. 특히 ESG 시대의 경영은 절대적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한 상생(相生)의 구체적 실천이어야 함을 사회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현재의 경영합리성 판단은 사회 전체적 삶의 맥락에서 반성과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반성과 인식은 윤리적 숙고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기업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인 인간과 기업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덕적 갈등 상황 가운데 실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SG 시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ESG 경영이 이러한 기업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짚어 본다. 그 후 국내 대표 기업들이 표방하는 '기업 시민' 개념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 제시한 '시민' 개념과 비교해 본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해 ESG 시대에 맞는 경영합리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 존재성과 ESG 경영

기업 경영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회적 합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귀속 가능성을 법학에서는 '인격'이라고 한다. 인격에는 생물학적 사람을 의미하는 '자연인'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 등에 인공적인 인격(artificial person)을 부여한 '법인'이 있다. 기업은 바로 이러한 법인(法人, legal person)인 것이다. [3]

그렇다면 공동체는 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을 법인으로 인정했을까? 이에 대해 로널드 코스(Ronald

Coase)가 내놓은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공동체 전체의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전략적 존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4]

생각건대, 이러한 주장에는 기업이 없을 경우 공동체가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과 기업이 이를 감소시켜 발생하는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공동체가 기업을 법인이라는 제도로써 용인한 이유 중 하나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존재와 경영활동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더 큰 경제적 부를 공동체에 창출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합리적 기대에 근거해 공동체는 회사법 등을 통해 기업의 정관에 해당 기업이 하고자 하는 고유 목적 사업을 미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와 복지가 향상되는 종류의 것들이다. 만약 기업의 목적이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인신매매, 마약이나 무기 제조, 아동 포르노 유통 등이라면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기업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의 모태인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을 하지만, 실상 사업의 목적이 해당 기업의 이익 극대화인 경우, 그 기업 역시 상생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합리성 판단에는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사회적 합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논거를 재산권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인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자기 이점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재산권 인정의 근거를 인간의 생존적 필요와 노동에서 찾았던 철학적 역사를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5]

이렇게 재산권이 문제되는 이유는 재산권이 특정한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권리’, 즉 배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타성을 인정받은 재산권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윤리적 문제를 낳

는다. 즉, 재산권의 합리적인 제한은 인간관계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인공적 존재인 기업에 재산권을 허용함으로써 자연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를 범규를 통해 제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산권 행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경영자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해관계 등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숙고를 하지 않은 채, 관행과 편견에 의해 선택된 경영활동의 기준인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이익과 환경 및 사회 전체 이익의 균형과 조화’를 상실할 경우,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업의 본질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결과이다.

ESG 경영은 사회적 존재라는 기업의 본질에 맞는 경영을 통해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ESG 경영’은 ‘ESG’와 ‘경영’이 결합된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단어 맨 앞 글자를 뽑아 만든 것인데, ESG란 말 자체는 2006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tta Annan)이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책임투자원칙이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투자 활동을 할 때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 마련을 위해 국제단체와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밝힌 이 법의 목적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ESG 경영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ESG 분야별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지속가능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기업들은 ESG 투자를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보다 많은 투자금을 보다 유리하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SG 경영 관련 동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일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관련 공시규정들을 확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2026년 이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인 ESG 경영 시대가 시작되리라 본다.

III.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 개념

기업 시민은 방금 설명한 ESG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기업의 자기 정체성 중 하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기업 시민은 기업과 시민을 결합한 개념이다. 기업 개념과 존재 목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시민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민 개념은 근대 정치적 개념이다. 학자들은 시민권을 성별, 인종, 국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특정 국가의 공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이해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아직 학문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6] 그러나 시민 개념 안에 소속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기업 시민 개념은 기업 역시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기업 시민은 그 동안 경제적 주체로만 여겨졌던 기업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ESG 경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각각 '기업 시민'과 '세계 기업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신들의 기업 시민 현장에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경영 목표와 기업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하에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고자 한다." [8] 삼성전자는 CEO 메시지를 통해 "삼성전자는 세계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가능경영이 사업과 제품 전략의 근간으로서 회사 전반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 [9]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기업 시민 개념을 통해 이제 ESG 시대에는 기업이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 남아있을 수 없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요구되는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시민이 갖는 4가지 특성에 대해 AB. CARROLL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익성이다. 기업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법적 책임이다. 기업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 책임이다. 기업은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도 부담한다. 넷째, 자선활동이다. 기업은 자신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7] 수익성은 기업의 존재적 기초가 된다. 수익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배당을, 국가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꾸준히 그리고 상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금은 사회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동체적, 환경적 가치를 무시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오직 자사의 수익성만을 목표로 삼아온 그 동안의 탐욕적 경영 행태에 있다. ESG 시대는 오히려 이러한 탐욕적 경영활동이 투자자 모집과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가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의 존재론적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데 도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은 인공적 존재이다. 국가 등 공동체가 이러한 기업에 인정해 준 재산권은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존재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기업은 공동체적 문제, 예컨대 기후재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로환경 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기업을 넘어 ‘기업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시민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을 통해 기업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본다.

IV.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3권에서 시민을 정의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시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이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민을 규정하는데 전제가 되어야 하는 폴리스의 성격, 즉 독재정인지, 과두정인지,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와 시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폴리스의 합의 내용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 또한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를 수여하기 위해 시민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처벌이나 세금과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 시민 개념을 사용하는 때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0]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시민’을 ‘심의회와 사법권을 공직으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회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사법권은 이러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하는 힘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법률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과 사법적 판단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민인 것이다. 요컨대 시민이란 공동체의 정치적 기능을 공직자로서 맡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잘 지배하고, 잘 지배를 받는 능력”을 가진 자로 표현한다. 시민은 “[지배하고 지배에 복종하는 것] 양쪽 모두를 알아야 하고 양쪽의 능력을 공유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하는 자에게 공동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을 ‘실천적 지혜’로, 지배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진

정한(올바른) 신념’이라고 한다. [11] 이러한 덕목들은 모두 공동체의 안전 등 전체적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V. ESG 시대의 새로운 경영합리성 도출

ESG 경영을 실천 중인 기업들이 말하는 ‘기업 시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현대사회의 기업과 같은 공동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업 시민’과 같은 조직에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나 올바른 신념을 말했을 리 없다.

이에 대해 I. Pies 등은 규범경제학적(ordnomic) 관점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에서의 시민 개인의 역할과 오늘날 사회에서의 기업 시민의 정치적 역할 사이에 중요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규범경제학적 관점은 공동체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근거로 해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규범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규범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 절차와 요건들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다. I. Pies 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에 요구하는 기능이 공동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심의회 평가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칙을 어떤 절차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참여하는 기능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의 심의회 평가 판단에 비록 기업과 같은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현대사회의 기업 시민을 아리스토텔레스적 시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12] 요컨대, 시민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시민의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업을 제외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적·환경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담론을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시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만약 사회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군가 주장한다면, 당장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시민 개념을 전개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은 해당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은 ESG 시대의 기업 시민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 검토한다. 기업 시민은 ESG 경영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현재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는 반환경적·반사회적 사업행태를 친환경적·친사회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포스코는 철을 생산하는 회사로 제철산업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이다. 용광로에서 우수한 품질의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석탄을 제외한 전기 등 다른 에너지로는 이 온도에 도달할 수 없다. 게다가 전기로에서 생산 가능한 저품질의 제품 시장은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어 포스코가 진출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철산업의 환경을 고려해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소를 ESG 시대에 적합한 구체적인 신사업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소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는 제철소로 석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물밖에 없는 친환경 제철소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소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의 의사결정은 자기 이익이나 환경적·사회적 이익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 모두를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한 ESG 시대에 맞는 실천적 지혜의 판단 사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신념에 대해 검토한다. ESG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올바른 신념이란 기업의 ESG 경영이 당장 재무적인

성과는 줄어들더라도 환경적·사회적 성과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까지 높임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연결된다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신념을 표현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에컨대, SK는 “세상에 ‘행복’을 더하며 영구히 존속·발전해 나가는 기업”을 ESG 경영 목표로 밝히고 있다. [13] 현대자동차는 “준법과 공정,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과의 투명하고 진심 어린 소통과 연대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목표로 삼고 있다. [14] 이외의 기업들도 대부분 전체 사회의 행복, 지속가능한 미래, 상생, 공정 등을 ESG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회사의 이익을 넘어서 더불어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영목표를 통해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ESG 시대에 적합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은 2024년부터 의무화되는 ESG 정보 공시 항목 중 매우 핵심적인 것들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SG 정보 공시의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일반정보 공개, 경제성과, 환경, 사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업이 ESG 시대에 어떤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ESG 경영활동을 전개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ESG 경영은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개별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실천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기초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동안 이러한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을 잊고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기업은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 추구에 필요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은 또한 무엇인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하고 숙고함으로써 경영합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VI. ESG 경영의 객관적 성과

기업이 과거의 합리성을 극복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올바른 신념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새로운 경영합리

성을 실천하였다면, 그 경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는 ESG 경영이 회사의 이익과 함께 환경적·사회적 이익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재무적 이익과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ESG 경영 합리성의 객관적 지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발표한 ESG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ESG 경영 성과는 앞서 소개했던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개별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외부 전문가가 ESG 경영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ESG 평가와 기업가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업 스스로 발표한 ESG 경영 성과를 살펴보자. 포스코는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제철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ESG 경영의 환경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포스코의 환경적 성과(2020-2022) [15]
 Table 1. POSCO's environmental performance (2020-2022)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 ₂ e) | 84,133,883 | 86,839,467 | 78,597,742 |
| 총 에너지 사용량(단위: GL) | 418,146,872 | 421,703,664 | 375,227,503 |
|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ton) | 79,905 | 76,866 | 64,887 |
| 총 폐기물 발생량 (단위: ton) | 24,310,264 | 24,109,019 | 21,434,243 |

위 표를 통해 포스코가 제철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적 성과가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ESG 경영 성과를 살펴보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삼성전자의 사회적 성과 중 협력회사 관련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관련 성과(2020-2022) [16]
 Table 2. Samsung Electronics' partner company-related performance (2020-2022)

| 구분 | 2020 | 2021 | 2022 |
|--------------------------------|-------|-------|-------|
| 협력회사 구매비용 (단위: 조 원) | 168.7 | 192.0 | 219.8 |
| 상생펀드 지원 (단위: 억 원) | 9,736 | 9,734 | 9,942 |
| 협력회사 인센티브 (단위: 억 원) | 77 | 893 | 931 |
| 혁신활동 지원 1차 협력회사 (단위: 개사) | 28 | 30 | 66 |

위 표를 통해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혁신활동 지원 1차 협력회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삼성전자가 협력회사의 혁신을 통해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조화하기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ESG 경영과 기업가치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자. 박진우와 이장우는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ESG 평가와 기업의 가치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들 기업이 재무적 목표 달성과 동시에 기업의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목표도 중요하게 생각해 ESG 경영을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ESG 경영 합리성이 기업 구성원의 내면적인 신념이나 윤리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기업 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기업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사회적 기대에 기초해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고 재산권을 소유·행사하는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은 전체 공동선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으로 조직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기업이 담당

하고 있다. 기업은 서로 경쟁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체 공동선의 증대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본질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경영 위함을 분산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경영활동이 합리적인가 여부는 자기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로만 평가되었다. 경영자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었고, 직원들 역시 매출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당위적인 행동규범으로 삼아온 사람들은 이익 추구에 도움만 된다면 환경과 사회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행동마저 서슴치 않고 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반환경적, 반사회적 경영행태가 누적되면서 기후재난과 소위 갑질로 통칭되는 인권 침해적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선진국과 UN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환경적·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그 해결책을 제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ESG 경영이다. ESG 경영은 기업에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미국, EU 등은 2024년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상의 중요한 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규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이후 단계별로 이러한 ESG 정보 공시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함께 환경적·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실천해야 하는 ESG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ESG 시대에는 기업 역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경영합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SG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해 필자는 앞에서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표적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식을 모색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시민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SG 시대에 맞는 경영합리성은 회사의 이익과 환경적·사회적 이익의 조화와 균형이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의 증대, 즉 '행복'을 지향한다. 이러한 행복은 앞서 살펴본 기업의 존재 목적과 일치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스의 시민에게 요구했던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은 공동체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날의 공동체가 기업에도 요구하는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ESG 시대의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능력 역시 지구촌 전체와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지혜와 신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신념의 구체적인 예를 포스코 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신사업 계획과 CEO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

나아가 기업 시민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올바른 신념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도 요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ESG 경영 관련 정책이 입안될 때, 이러한 철학적 검토와 실천 방안이 정책 논의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

References

- [1]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1970.;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2.
- [2] World Energy Outlook 450 Scenario(2012~2040) of IEA, 2DS Scenario(2013-2050) of ETP, Renewable Energy map Scenario(2010-2030) of IRENA and so on.
- [3] Lee Cheol-song, 『Company Law Lecture』 (24th edition), PARKYOUNG publishing&company (2016)
- [4] R. H.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ew Series, Volume 4, Issue 16 (Nov., 1937).
- [5] Kim Nam-doo Compilation, "The Ideas of the Flow of Property Rights", Book Publishing Cheonji (1993)
- [6] Tilly C.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 1995;40(S3):1-17. doi:10.1017/S0020859000113586
- [7] AB Carroll, “The Four Faces of Corporate Citizenship”,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0/101: 1 - 7(1998)
- [8] 2022 POSCO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p.3
- [9] Samsung Electronics Sustainability Report 2023 KOR, p.4
- [10] Johnson, Curtis. “Who Is Aristotle’s Citizen?” *Phronesis*, vol. 29, no. 1, 1984, pp. 73 - 90. JSTOR, <http://www.jstor.org/stable/4182188>. Accessed 25 Jan. 2024.
- [11] Translated by Kim Jae-hong, 『Aristotle’s Politics』, GreenBee (2023) p.228-247
- [12] Pies, I., Beckmann, M., & Hielscher, S. (2014). The Political Role of the Business Firm: An Ordonomic Concept of Corporate Citizenship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the Aristotelian Idea of Individual Citizenship*. *Business & Society*, 53(2), 226-259.
- [13] SK Sustainability Report 2023 KOR, p.3
- [14] Hyundai Motors Sustainability Report 2023 KOR, p.4
- [15] 2022 POSCO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p.113-114
- [16] Samsung Electronics Sustainability Report 2023 KOR, p.101-106
- [17] Gin Hyeuk Park·Jang woo Lee, “The Impact of ESG Assessment of Firm Value based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KOREAN JOURNAL FINANCIAL MANAGEMENT*, Vol. 39, No. 2, April 2022, p.147-184